

# 결 과 보 고 서

## - NPO 지원센터 해외석학초청 특별 강연-

### □ 개 요

- 행사 명: 해외석학초청 특별 강연 “21세기의 시민사회와 비영리 단체”
- 일 시: 2016. 1. 13(수)(14:30~17:30)
- 장 소: 서울시 NPO 지원센터 1층 ‘폼다’
- 주 최: 서울특별시
- 주 관: 더미래연구소,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NPO센터
- 참 가 자: 문기현 공동체팀 대리

### □ 내용

- 램크난(Ram A. Cnaan)교수의 세계 각국 비영리단체 조직과 활동 비교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건강성의 조건에 대해 강연.
- 미국 비영리 기관의 발전과 특징 이해를 위해 미국 사회의 구성 역사, 정치적 특성, 다문화적 사회 구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이를 통한 NPO의 성장 배경, 활동 성격 등에 대해 설명.
- 램크난에 의하면 미국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많음 부분을 자원 봉사 활동이 차지함. 56%의 미국인들은 매주 평균 3.5시간의 자원봉사를 하며 자원 봉사 한 시간의 가치는 현재 23.7달러로 추정됨. 이러한 미국인들의 사회 활동 참여는 사회 참여를 통해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인식에 의한 것이며 이런 사회 활동이 나아가 시민사회 활동으로 발전됨.
- 미국의 시민사회는 같은 민족을 기본으로 하거나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특성에 의해 공동의 이슈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 생겨나는 경향이 크며,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이 구성되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조직을 해체 하는 등 조직, 해체가 자유로운 경향이 있으며 공동의 이슈에 의해 조직이 구성되니 멤버들의 회비 등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정부에 대한 불신에 의해 시민사회가 조직되지만 시민사회에 의해 문제가 해

결되면 정부에게도 편리함으로 시민사회의 발전이 가능하였음.

- 미국 시민사회를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예산 500,000 달러 이하의 단체가 73%로 지속적으로 단체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 없이는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정부를 대신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민단체도 많음.
- 미국의 시민 사회의 성격은 한국의 시민사회와 많이 다르며 이로 인해 비교하기가 쉽지 않음. 하지만 비영리 단체라는 것, 어떠한 변화를 위해 활동한다는 점에서 시민 사회의 기본 원칙은 동일하며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활동한다면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임.

